

‘의료 공백’ 최소화...간호사들, 의사업무 일부 수행한다

복지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 계획안 발표 “민·형사상 책임 법적 보호” 의료기관장-간호부서장 협의 업무범위 설정...사망진단·수면마취 등 제외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

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근거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경도말 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나-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기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 나흘째인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사업무 수행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목포해양대, 70년 도민과 성장...지역거점대학 육성”

인천대와 통합 반대 입장문 보내 대학과 상생발전 모색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소멸과 대학 위기 협실에서 지난 70년간 도민의 사랑 속에 성장한 목포해양대가 지역과의 동반성장보다는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지방소멸과 대학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지역 거점대학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올해도 교육 3대 프로젝트인 교육발전특구 지정, 글로벌대학 추가 선정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에 지역 대학들과 한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된 상태로,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적용받아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이와 같은 입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으로 혁신의 적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은 국가와 지역, 대학 모두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와 함께 “목포해양대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로 수도권이나 다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며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전남도는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글로벌대학 지정 총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계속 선도하고 있다.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지역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호국원에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만,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

장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관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했다. 보훈부는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 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내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안장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내년 3월까지 5인 이상 단체 관광객 전남도, 글로벌 관광산업 견인 기대

오는 2025년 3월까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광주·전북·제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법무부의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으로 꾸준히 해당 국가 전체·정기선을 유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베트남 관광객 50여 명을 시작으로 4000여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BC카드사에서 발표한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전남 카드결제 건수가 전년보다 303%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무사증제도와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설명회, 전세·정기선 유지 등 전방위로 노력한 것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정기·부정기 노선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일상회복(엔데믹) 이후 국제관광이 활발히 움직이는 가운데 해외관광객 맞춤형 체류상품을 확대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도 해양지식센터, 목포 오션호텔 등 전남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겨남에 따라 신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 지원...재판기록 열람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 지원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 선정이 가능했던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 폭력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발생암 매각

구분	매각수량	발생장소	운반조건
발발량 (보통입, 경입)	167,165㎥ (자연상태/실계수량)	전라남도 무안군 문암면 원문리, 일문리 등지 (산자취지는 현장설명서에 열거)	산차도 (입찰시 운반비 부합)

* 1구간: 94,578㎡, 2구간: 72,587㎡

2.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최고가 낙찰제, 2개구간 분할 입찰, 동시 입찰 입찰자가 제시한 1㎡당 원사태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격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산정 방법에 의함)
- 현장설명회(참가 의무사항)
 - 일 시: 2024. 03. 04(월) 14:00
 - 장 소: 전라남도 무안군 문암면 원문로 1033-20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현장사무소)
 - 제출서류: “5월” 입찰업체 제출서류 참조
- 입찰등록금(보증금): 2024. 03. 06(수) 14:00 (시간 미준수시 입찰 참가 제한)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03. 06(수) 14:30 (현장설명회 장소와 동일)
- 낙찰자 선정: 2024. 03. 06(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3.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4. 입찰 참가 자격

- 현장설명회 및 현재 공제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제채취업 (산림공채취업 또는 공제·선별·피해업)으로 등록한 자(지자체 공제 선별·피해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고가격 업체가 가능한 크리사 장비 보유, 현장설명회 및 계약발령 준공허가 등 동업자 확인을 확보하여 상시 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법인회사가 동일해야 하고, 아적장은 동일인(동일법인 또는 동일개발사) 명의로 아적장일 경우와 임대 아적장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임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 실사를 가진 적격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현장설명회 참조)
-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업체 중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회 기준으로 세급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신청서 제출한 사업장(아적장 또는 공제생산지)은 발생암 매각, 공제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5.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 반입장(공제생산지 및 아적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 공제 선별 피해업 사명서 등 제출 및 공제 선별 피해 신고 수리증 1부
- 아적장 부지 인허가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1부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등)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제 1부
- 지방세 및 국제 완납증명서 1부
- 대표이사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1부

6. 기타사항

-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통보를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사항 문의처(현장접수만 가능)
 - 매 각 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디엘이엔씨(전라남도 무안군 문암면 원문로1033-20)
 - 기 타 문 의: 시공사 디엘이엔씨(주) 061-453-5768, 건설사업관리(주)동명기술공단 061-454-4091

2024년 2월 28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4공구 건설공사
계약대리인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거리-무등산방향 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잠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성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펜션 금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태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민간사업법 제48조제2항)

1. 발전사업 개요

- 발전소 명: (유)신안신안태양광 태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신안군 신안읍 신안리 1700번지 299-1 (32필지) (영장리 1616-6, 1616-8, 1616-2, 1616-4, 1620,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1617, 1617-2, 1617-4, 1617-6, 1618, 1618-4, 1619, 1619-2, 1619-4, 1616-10, 1614-2, 1614-3, 1614-4, 1614-5 / 영장리 1704-25 / 지용리 1976, 1976-2, 1977, 1977-2)
- 발전소 면적: 740,863㎡
- 공고기간: 2024. 02. 22. ~ 2024. 03. 04. (12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7,987kW
- 사업계획발령일: 2022년 01월 이후
- 사업용량기간: 2028. 01. 01. ~ 2048. 12. 31. (20년)

3. 발전사업 허가신청

- (유)신안신안태양광 대표이사 남영민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2. 22. ~ 2024. 03. 04. (12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3-8000 팩스: 02-6253-7777
 - E-Mail: help@solukereeng.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영영네거리와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담해동 원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태양발전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서류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열람이 불가한 경우, 재화가 직접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분실공고

-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30, 101동 706호 한국야동리움 스테이
- 계약자: 김승현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 2024년 2월 28일